



###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블랙 스완'은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만든 발레음악 '백조의 호수'에 대한 극한의 변주곡이자, 이 작품에 대한 현대적 오마주이다.

영화는 순결을 상징하는 백조와 타락을 상징하는 흑조를 동시에 연기해야만 하는 '백조의 호수' 주인공 역에서 착안한다. 전 무용수였던 엄마 아래서 크게 키워진 니나(나탈리 포트만)는 꿈에 그리던 백조의 호수 주인공 역을 맡게 되지만, 자신을 발탁한 감독 토마스(뱅상 카셀)로부터 흑조로서의 타락하고 관능적인 모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시달린다. 결국 그녀는 작품에 대한 압박관념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에 시달린다.

영화의 상당부분은 니나의 강박관념과 정신분열증세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데, 아로노프스키

왕자를 보며 결국 자살하게 되는 스완퀸, 자신을 퀸으로 만들어준 왕자 토마스에게 완벽한 흑조 연기를 선보이며 서서히 죽어가는 니나.

영화의 긴장감을 만들어가는 게 아로노프스키의 영상이라면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것은 클린트 만셀의 오리지널 스펀이다. 만셀은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원곡의 오케스트레이션 기법과 주부선율을 그대로 가져다가 새롭게 변주를 더하고 편곡하여 '블랙 스완' 스펀을 만들었다.

'백조의 호수' 녹음은 상당히 많다. 음반은 전곡판과 결정적인 장면들만 골라 발매했는데, 굳이 발레와 함께 감상하지 않는다면 편집판만으로도 곡의 감동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접근하기도 쉽다. 많은 음반들 가운데 추천하는 녹음은

'블랙 스완' 中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 욕망의 경계에 선 삶, 그 처절한 드라마

만들어낸 영상은 소름이 끼칠 정도다. 별다른 잔인한 액션 하나 없이 등골이 오싹하게 만드는 장면들은 이 영화의 장르 구분에 '스릴러'라는 꼬리표까지 하나 더 달아주었다.

덕분에 단순히 선과 악의 극적인 대비로 진행되어야 할 '백조의 호수'는 감춰진 욕망과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거대한 주제까지 끌어안은 채 극한의 지점까지 거침없이 변주되어 간다.

영화 속 니나의 삶은 '백조의 호수' 주인공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 백조의 외관에 갖혀 자신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줄 왕자를 기다리는 스완퀸. 자신이 이루지 못한 발레리나로서의 꿈을 딸이 이뤄주기를 바라는 엄마의 삶에 갇혀 화분처럼 키워진 니나. 흑조의 품에 안겨버리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 빈 필의 연주다. 1964년 대가 녹음으로 당대를 대표했던 프로듀서 존 컬소와 고든 페리의 협업이 만들어낸 명 녹음이다.

음악의 제왕이라는 칭호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정치적 야심과 독재자적인 음악계에서의 활동으로 이중적인 예술가 중 한 명으로 분류되어 버린 카라얀의 연주는, 묘하게도 영화 '블랙 스완'이 내밀고 있는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소재와도 부합되는 면이 있어, 다시금 관심을 갖게 된 녹음이다.

빈 필의 유려한 음색과 합주력에 잡티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 카라얀의 매끈한 해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오히려 진짜 '영화 음악' 같은 연주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 내년 광주비엔날레 실험적이면서 대중적으로



내년 가을에 열리는 제9회광주비엔날레(2012년 9월7일~11월11일)는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대거 초대하고, 이를 쉽게 관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16일 공동 여성감독 5인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2차례 가졌던 기자 회의를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정, 마이 카타오카, 캐롤 잉화 루, 낸시 아다자냐, 외산 알-쿠다이리 등 5명의 공동감독들이 참여했다.

이들 감독들은 "실험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요소도 확보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아시아의 여성 감독 6명이 서구·남성 중심의 현대 미술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의미 있는 전시를 꾸미며, 관객들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체험행사 등도 결을 여진다. 또 작가 리서치와 전시 기획 등 모든 준비 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다.

김선정 감독은 "광주정신을 어떻게 현대적인 것으로 형상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

### ■ 공동 여성감독 5인 기자회견

신진 작가들의 작품 대거 출품  
관람객 참여 워크숍·체험행사  
전시 기획 공개 교육의 장으로  
광주극장 전시장 활용 모색도

장 크다"면서 "교육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더욱 많은 사람이 전시회에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와 비엔날레가 더욱 밀접하게 연관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이 카타오카는 "작가 리서치 과정을 인터넷에 올리고, 전시 기획 과정을 지역 큐레이터들에게 공개해 전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함께 나누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민과 학자들과 함께 하는 광주의 정신과 예술 등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도 열 계획이다.

외산 알-쿠다이리는 "비엔날레는 공동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반



인과 작가들의 시각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비엔날레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들 감독들은 지난 15일에는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 등 지역 미술관 관계자와 작가 등 문화예술계 원로 20여 명과 만나 전시 전반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또 최근에는 김선정, 캐롤 잉화 루가 전시장 리서치 일환으로 광주극장 등지를 찾는 등 광주를 더욱 깊게 이해하기 위한 감독들

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낸시 아다자냐는 "5·18민주화운동은 자발적인 저항정신이 돋보인다. 현대사회에 맞는 다채로운 저항정신을 보여주는 전시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감독들은 오는 8~9월 전시 주제를 확정할 예정이며, 재단 나머지 한 명의 감독은 다음주께 선임할 계획이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자연영화사' 공동제작한 '철 피아노' 中서 개봉

### 음악감독엔 뮤지션 오영목씨... 부천영화제 통해 국내 첫 선

광주 소재 영화제작사인 (주)자연영화사(대표 최광석)가 중국파트너와 공동제작하고 AN'T SOUND CONTENTS(대표 오영목)가 음악에 참여한 '철 피아노'(감독 장명·The Piano In A Factory)가 지난 15일 중국 전역 1240개 스크린에서 개봉했다.

최광석 대표가 지난 2004년부터 중국에서 영화작업을 진행한 이후 3번째 완성한 작품이다.

'철 피아노'는 2000년대 초반 중국 철강도시에서 벌어지는 한 가족이야기로 이혼과정에서 하나뿐인 딸을 데려가겠다는 아내(한국배우 장신영 분)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이에 마음이 바빠진 주인공 남편(중국 배우 진계림 분)은 이혼은 해주지만 피아노만 있으면 아버지께 낚겠다는

어린 딸의 말에 무슨 짓이든 해 피아노를 구하려고 한다.

개혁개방이란 이름으로 변화해가는 중국 현실 속에 한 가족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세밀하게 표현한 '철 피아노'는 2010년 도료국제영화제 경쟁작으로 선정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그해 토크로 국제영화제와 마이애미국제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부천영화제를 통해 한국 관객을 만나게 되며, 광주에서도 특별시사회를 준비중이다.

음악 감독을 맡은 오영목 대표는 광주를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해온 뮤지션이자 공연, 음반제작자로 광주mbc별방가족, 꼬두메를 거쳐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의 '포엠 콘서트'를 제작했다. 올초에는



MBC에서 방영된 2D창작애니메이션 '금비공주와 호야의 천자무공'의 주제가와 음악 등 모든 후반작업을 광주에서 하기도 했으며 이번 작품으로 중국 미니시리즈 음악감독으로 리브콜을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시각장애 클라리넷 연주 장성규씨

### 오늘 '빛고을 천원의 행복' 무대에

시각장애인 클라리넷 연주자 장성규씨가 '빛고을 천원의 행복' 무대에 선다.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영상복합문화관 1층 공연장.

'No... ing'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장씨는 아시아아트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트링 앙상블과 함께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고흥 출신으로 광주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장씨는 11번의 낙방 끝에 2007년 11월 독일 카셀 음대에 합격, 석사졸업장을 받았다. 현재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밟고 있는 장씨는 이후 주립대학에 입학예정이다. www.gjasia.org.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엔틱 식탁, 좌탁, 거실장, 침대

클래식 소파, 식탁, 침대

카우치-20종류

스페이스 062-226-7567

ITALY

SINCE 1992 100% 이탈리아 가구 직수입 도·소매 동구 장동 58-15 동구청 - 전남여고 사이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